

대불련 40년, 동문 찾기 캠페인

공동주관: 대불련 총동문회 · 대불련 · 현대불교신문사



◇70년대 대불련 활동의 주역이었던 동덕여고 불교반 동문들, 김재영 지도부사(왼쪽에서 세 번째)와 손경욱, 유정애, 홍경희(왼쪽부터) 동문이 '대불련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성신여대 등 10여개 불교학생회 결성 주역 창립 당시의 '순수한 정열' 다시 후배에게

열정은 식지 않았다. 벌써 중년이 됐어도 대학 내에서 불교 동아리를 만들며 젊음을 불태웠던 정열만큼은 그대로였다. 12일, 서울 사간동 갤러리 현대에서 만난 동덕여고 불교반 동문들, 70년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의 주춧돌이다. "순수와 열정,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청년불교운동의 선구자라는 자부심은 법우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밤새우며 구도열정도 지쳤고, 작은 깨달음에도 환희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야말로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던 젊은 날이었습니다." 유정애(51 · 동덕여대 71학번), 홍경희

(48 · 서울대 74학번), 손경욱(48 · 중앙대 75학번) 씨, 이들은 고교 시절부터 국사 교사였던 김재영 선생(현 청보리회 법사의 지도부)를 만났다. 김재영 선생은 특히 이들에게 실천 중심의 보살행 제일주의를 강조했다. 불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히 현실 속에서 깨달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 선생의 주문은 곧바로 이들의 실천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당시만해도 생소했던 전불가 보급 및 창작 운동을 벌였고, 매년 '연꽃들의 행진'이란 불교축제를 손수 기획할 만큼 당찬 소녀들로 키우게 했다. 또 대학을 진학한 후에는 대불련 조직을 늘리는 핵심 일꾼

'대불련 파이팅' 열정은 식지 않았다

으로 활약했다. 유 씨는 동덕여대 불교학생회를 만들었고, 홍 씨는 서울대 음대에 불교모임 결성을 주도했다. 또 손 씨는 75년 동덕여고와 서울고 졸업생으로 구성된 '청보리회'를 창립, 청년불교운동을 이끌었다. 창립시킨 불교학생회단 성신여대, 서울간호대 등 10곳이 넘는다. "동덕여고 불교반 동문들은 개혁시기에 있던 대불련에 동력을 제공하는 '파이프라인' 역할과 같았습니다. 이번인가요? 기존 불교학생회에서는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때 함께 활동하며 대불련의 기반을 다진 도반들만 해도 성신여대 어순아 교수(73학번), 동국대 김복순 교수(72학번), 원광대 심선경 교수(77학번) 등 대단히 많다. 이들은 매달 한번씩 모임을 갖고 대불련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과 동문 찾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찾고 싶은 분, 사연 등 보내세요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고 싶은 분은 사연과 연락처를 본지나 대불련 총동문회로 보내 주십시오.
연락처: 현대불교신문사 www.buddhanews.com / 대불련 총동문회 www.daebul.or.kr

●대불련 후원회원 됩니다
불자학생들을 돕고, 대학생 포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자 및 동문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참여방법: 일시 후원-1구좌(1만원 이상) / 정기 후원-월1구좌 자동이체
▶문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02)732-0239, 739-0913
▶계좌번호: 국민은행 023-01-0565993, 농협 053-01-252868, 조흥은행 390-01-071917 (예금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후원금 내신 분(총동문회)·

- 〈10구좌〉 명호근(명예회장) 성기태(총동문회장) 백효수(수석부회장) 전창철(상임고문) 김윤권() 신호철() 이영치()
 - 〈5구좌〉 박세일(상임고문) 김규철() 이재영() 이우봉() 황기철(부의장) 윤제철() 여익구() 전보삼() 박문숙() 임동주() 어순아()
- 이상 6월 18일까지 접수 명단입니다.

'참여하는 불칭, 행동하는 청년'

평화문화제, 삼보일배 등 행사 다양

대불청 청년대회 성료

전국의 청년불자들이 남북 화해와 세계평화를 염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불교청년대회회장 정상욱, 이화대 불칭은 6월 14, 15일 충북 보은 속리산 범주사 입구 잔디광장에서 제 22차 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참여하는 불칭, 행동하는 청년"을 주제로 열린 이번 불칭대회에서는 전국 13개 지부 1천여 청년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신인 총재로 추대됐다. 또한 불칭대상 시상식에서는 부산지구 류상영씨가 대상을, 강원지구 탁정일씨가 총무원장상을, 경남지구 박동근씨가 한국불

교종단협의회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불교청년대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프로그램은 6·15 남북공동성명 발표 3주년을 맞아 열린 '대불청 평화문화축제'와 '평화와 생명 보전을 위한 삼보일배'.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 평화문화축제에서는 이라크 전쟁과 대구지하철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과 영령, 자연파괴로 생명을 잃은 중생을 애도하는 발원문이 봉독됐다. 또한 청년불자들의 참여와 결의를 담은 촛불의식과 평화기원 탑 쌓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15일에는 잔디광장에서 범주사 청동대불 앞까지 1천여 청년불자들이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촉구하는 '평화와 생명 보전



을 위한 삼보일배(사진)를 봉행, 평화를 염원하는 청년불자들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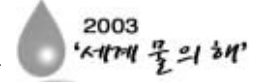
대불청 정상욱 회장은 "이번 대불청대회는 청년불자들에게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서로 교류하는 장이 된 것 같다"며 "특히 남북 화해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프로그램들은 불교의 대 사회적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포교 뿐만 아니라 민족 통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법사단 창설 58주년 기념대회

전국교법사단(단장 김형중)은 28일 오후 3시 동국대학교 대각전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법사단 창설 58주년 기념대회를 봉행한다. 이번 기념대회에서는 조영재(금산종), 최성희(은성초), 박재정(광동고), 배영일(정광고) 등 4명의 신인 교법사에 대한 품수식과 청소년을 위한 경전말씀 모임집 <빨리 가기도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사는 거야>의 봉헌식도 함께 열린다.

파라미터 광주지부 창립식 개최

파라미터 광주지부는 6월 21일 광주 무가사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을 비롯해 파라미터 지도자 및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개최한다. 특히 광주지부는 지역 불자 교사들과 사찰, 그리고 불교학생회들간의 자발적 동참으로 창립되는 것이어서 아직 창립되지 않은 인근 전지역 창립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물맛

순수한 물 분자인 H₂O로만 이루어진 증류수의 경우 무색, 무취, 무미의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고 있는 물에는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어 독특한 맛을 낸다. 물 맛을 좋게하는 미네랄 성분은 칼슘, 칼륨, 규산 등이다. 칼슘의 경우, 적당량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은 맛을 내지만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잔맛을 내기도 한다. 광천수나 지하수가 물 맛이 좋은 이유는 이들 광물질량이 높아 있어서 독특한 맛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반

좋은 물맛은 칼슘 등 적당량 포함
수온은 13℃, 끓여 마시는 경우 70℃

대로 마그네슘과 황산, 이온, 염소 등은 물 맛을 나쁘게 한다. 소독을 심하게 한 염소가 다량으로 섞인 수돗물은 물 맛도 없으면서 아니라 독특한 냄새가 난다. 수온 또한 물 맛에 많은 영향을 준다. 과학자들이 물 맛과 수온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물 맛이 가장 좋은 수온은 13℃ 전후다. 끓여 마시는 경우는 70℃ 정도. 반대로 물 맛이 시원치 않은 온도는 35-40℃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명작 비디오 파일

큐브 2

<아메리칸 사이코>와 <저수지의 개들> <필프 픽션>을 촬영했던 안드레이 세콜라가 감독을 맡아 2003년 개봉한 큐브2. 왜 이 새하얀 큐브 속으로 왔는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8명의 사람들, 누가, 왜, 어떻게 우리를 가두었을까? 해결의 키워드는 무기연구소 '아이존'. 서서히 드러나는 아이존과 8명의 연결고리. 도형, 숫자, 죽은 물리학자의 시체. 모든 가능한 현실이,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내가 한자리에 모여서 다시 죽고, 죽인다. 절대 통제불능지역. 하나의 시간대에 오직 하나의 현실만이 존재하는 그런 3차원 세상이 아니다. 여기는 여러 개의 시공간이 공존하는 4차원의 하이퍼큐브. 공간도 시간도 3차원의 세계에서 살아온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그곳엔 진정한 '나'가 없다. 말라죽은 내 모습을 보고 있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에 녹아 있는 '공' 사상은 눈앞에 있는 사물이나 사건을 부정하여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함이 없는 부정과 비란의 연속 끝에 그대로 긍정함으로써 해결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이퍼큐브에서도 이러한 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그것만이 살 길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인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02) 396-2736 · HP 016) 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2003.1.15 만우스님 파동명상수련으로 영통(靈通)을 이루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에서 수행하신 많은 스님, 법사님들이 파동명상을 통하여 경험하신 신묘하고 놀라운 경험담을 신고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에서 포교원 <구룡사 052)298-9960, 017-521-9952>을 운영하시는 만우스님(영통수련반 2기생)은 지난 2002년 10월말 경, 저희 연구소와 인연을 맺고 파동명상수련을 하시던 45일째 되던 날 새벽, 스님의 인당혈에서 평소와는 다른 감각(심한 진동)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날 이후 스님은 영통靈通(속명통)이 열려 구룡사를 찾은 많은 신도들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제도하는 힘과 능력이 생겼다. 만우스님은 평소애 방편으로

친문과 지리, 육임과 명리학 등에 관계된 많은 공부를 하셨는데 그 공부들은 스님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해 항상 답답해 하시다가 본 연구소의 영통수련반에 입문하시어 파동명상수련으로 영통靈通하게 되었다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왔다. 현재 속명통을 이룬 스님의 소문을 듣고 구룡사로 밀려드는 많은 신도들(하루에 4-50명)의 일상사에 대한 친견 때문에 분주한 나날을 보낸다고 한다 또한 스님은 본 연구소와 인연을 맺은지 불과 6개월만에 신도수가 2000명으로 불어나 지금은 모처에 큰 불사를 일으키기 위한 준비를 다 마쳤다는 말씀을 근간에 전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명: 몸속에 있거나 장에를 주는 영가와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는 것을 제주(祭主) 또는 신도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
- ◆ 원격명상제명: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한다.
- ◆ 영통靈通수련: 특별한 기법의 파동명상을 통해 靈痛을 열 수 있게 한다.(속명통..)
- ◆ 파동명상수업의: 태어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명시식, 천도 및 제령
- ◆ 수련대상: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 수련일시: 매월 2째주, 4째주 (본원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 수련과정
 - 1 파동명상 전문반: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수련비 200만원)
 - 2 영통수련반: 전문반 수련후 상담후 등록(수련비 300만원)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